

일부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민경¹, 이미라^{2*}

¹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²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The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me Dental Hygiene

Min-Gyeong Ji¹, Mi-Ra Lee^{2*}

¹Professor, Division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고자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향 구축과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충청·전라도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작성하였다. 외모만족도는 자아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취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자아효능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에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집중강화를 위해 올바른 미적 가치관에 기반한 긍정적인 외모 수용과 자아효능감 증진을 융합한 실제적인 상담프로그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치위생전공 학생

Abstract This is descriptive research aimed at determining the relations with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ontrolling job-seeking stress and at providing basic data necessary to decide on an education direction for better career maturity and explore psychological resources. For data collection, convenience sampling was performed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consenting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in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to complet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25 to December 13, 2019. Appearanc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seeking stress. The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were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practical counseling program targeting the combination of positive appearance acceptance and improvement in self-efficacy on the basis of correct aesthetic values with the objective of reinforcing job-seeking competence intensively among dental hygiene majors.

Key Words :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Dental hygien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Mi-Ra Lee (lmr3500@hanmail.net)

Received August 30,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1,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대학생들은 급변하는 치열한 경쟁사회 안에서 미래에 불확실함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1].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앞두고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발견, 마련하기 위한 학업 성취와 더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도 하는 때이다[2]. 최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심리적 요인들이나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

특히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준비단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스트레스로서,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경험하지만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와 반응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취업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수준 및 영향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4,5]. 이러한 스트레스 정도에 부적응이 되면 스스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긴장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되며,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음으로 본인의 외모만족, 인상형성,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3,6,7].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취업을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외모만족도는 타인과 비교를 통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지각되며, 개인이 자신의 신체나 기능에 대해 가진 느낌이나 태도로서, 외모만족도가 높으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교성을 가지며, 직업적 성공을 인지하게 된다[8,9]. 이처럼 외모에 만족하는 대학생은 사회생활에서 자신감과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는 반면에, 불만족 학생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위축될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어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10]. 취업스트레스와 외모만족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외모로 인한 긍정적 후광 효과에 따른 만족과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 등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5,9,11].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변화를 주어 자기 발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내부 변인으로 작용하며, 원만한 대학 생활 적응에도 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9].

자기효능감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조절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 결과로 그에 합당한 행위를 선택,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서적 요인으로서,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동과 조치로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어 성취감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행태를 취한다[9,12].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는 내적 요소로, 특정 행동이나 행동 변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13,14]. 또한 자기효능감은 쉽지 않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를 의미하며, 힘든 상황을 조절,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전, 목표실현의 기회로 생각하며, 잘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편이다[3,15,16]. 따라서 취업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스스로 능력에 대한 신념과 함께 의욕적인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17].

타 전공자들에 비해 안정적이고,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건의료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고 강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대상자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는 동시에 취업 문제는 더 이상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도 예외일 수만은 없으므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18]. 취업률은 치위생 전공 선택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꼭 높다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전공만족도가 떨어지면 학과 부적응이나 전과 고려, 휴학, 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19]. 이는 곧 취업된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이직과 치위생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치위생전공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분야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취업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로써 10년 이상 흐름 속에 4년제 학제가 완성된 현 시점에서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처방안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20].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나, 4년제 치위생 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년제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과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향 설정과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여 취업스트레스 감소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성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충청·전라도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에 대해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모든 자료는 익명 처리하며 연구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version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예측변수(일반적 특성,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11개로 감안하였을 때, 표본 크기 최소인원은 178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한 19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외모만족도 7문항, 자아효능감 8문항, 취업스트레스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모만족도는 김의 외모콤플렉스 중 스스로 느끼는 외모만족도로 구성된 것을 김이 수정·보완한 설문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1,22]. 자아효능감은 Chen et al. 이 개발한 설문지를 조와 노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였으며,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3,24]. 취업스트레스는 진 등과 임이 해석한 측

정도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5,26]. 외모만족도 Cronbach's α 는 0.860, 자아효능감 Cronbach's α 는 0.754, 취업스트레스는 Cronbach's α 는 0.857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에게 사용한 변수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취업스트레스는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수 특성

Table 1에서 5점 만점으로 측정되었고, 외모만족도는 2.67점이었으며, 자아효능감은 3.14점이었고, 취업스트레스는 2.6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Information of scales

Variables	N	Item	Mean	SD	Range	Cronbach's α
Appearance satisfaction	192	7	2.67	0.80	1~5	0.860
Self-efficacy	192	8	3.14	0.67	1~5	0.754
Job-seeking stress	192	8	2.65	0.84	1~5	0.857

3.2 일반적 특성

Table 2에서 학년은 4학년이 25.5%, 1학년과 3학년은 25.0%, 2학년은 24.5%로 나타났고, 주관적 가정환경인식을 좋게 한 경우가 55.7%로 아닌 경우 4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한 경우가 65.6%로 건강하지 않다는 경우 3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 40.6%, 불만족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용돈은 40만원 이상인 경우가 57.3%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20만원에서 40만원인 경우 23.4%, 20만원 미만인 경우 19.3%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57.3%로 없는 경우 42.7%보다 높게 나타났고, 치위생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보장인 경우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및 주변 권유 28.1%, 성적에 맞추어서 11.5%, 적성에 맞추어서 9.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Grade	1st	48	25.0
	2nd	47	24.5
	3rd	48	25.0
	4th	49	25.5
Subjective home environment awareness	Good	107	55.7
	Poor	85	44.3
Health condition	Healthy	126	65.6
	Unhealthy	66	34.4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4	12.5
	Normal	90	46.9
	Satisfaction	78	40.6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Monthly average allowance	<20	37	19.3
	20~40	45	23.4
	≥40	110	57.3
Part time job	Yes	110	57.3
	No	82	42.7
Motives of application f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mployment guarantee	98	51.0
	Encourage parents and people around	54	28.1
	According to grades	22	11.5
	According to aptitude	18	9.4
Total		192	10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취업스트레스

Table 3에서 외모만족도는 주관적 가정환경인식이 좋은 경우 2.83점으로 안 좋은 경우 2.47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건강한 경우 2.78점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 2.45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Appearance atisfaction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rade	1st	2.72±0.82	0.170 (0.916)	2.97±0.61 ^b	3.869 (0.010 [*])	2.77±0.85	0.459 (0.711)
	2nd	2.61±0.80		2.99±0.76 ^b		2.63±0.77	
	3rd	2.70±0.83		3.27±0.60 ^a		2.60±0.84	
	4th	2.65±0.78		3.34±0.64 ^a		2.59±0.93	
Subjective home environment awareness	Good	2.83±0.73	2.424 (0.045 [*])	3.25±0.65	3.169 (0.036 [*])	2.50±0.74	3.539 (0.029 [*])
	Poor	2.47±0.89		3.01±0.69		2.83±0.95	
Health condition	Healthy	2.78±0.85	2.349 (0.048 [*])	3.22±0.63	3.032 (0.041 [*])	2.53±0.83	2.866 (0.043 [*])
	Unhealthy	2.45±0.74		2.89±0.72		2.75±0.86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57±0.55	0.562 (0.571)	2.92±0.75	2.144 (0.120)	3.04±0.68 ^a	5.956 (0.003 ^{**})
	Normal	2.73±0.82		3.12±0.71		2.74±0.88 ^{ab}	
	Satisfaction	2.63±0.85		3.24±0.58		2.43±0.79 ^b	
Monthly average allowance	<20	2.67±0.92	0.004 (0.996)	3.14±0.75	0.877 (0.418)	2.76±0.88	1.397 (0.250)
	20~40	2.66±0.65		3.03±0.65		2.77±0.67	
	≥40	2.67±0.82		3.19±0.65		2.56±0.89	
Part time job	Yes	2.64±0.84	0.606 (0.545)	3.01±0.67	2.331 (0.049 [*])	2.78±0.86	2.473 (0.042 [*])
	No	2.72±0.73		3.24±0.67		2.50±0.81	
Motives of application f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mployment guarantee	2.68±0.83	0.702 (0.552)	3.07±0.72	1.530 (0.208)	2.65±0.89	0.385 (0.764)
	Encourage parents and people around	2.62±0.81		3.15±0.60		2.67±0.77	
	According to grades	2.55±0.73		3.38±0.72		2.48±0.98	
	According to aptitude	2.89±0.75		3.26±0.48		2.76±0.64	
Total		2.67±0.80		3.14±0.67		2.65±0.84	

* : p<0.05, **: p<0.01, ^{a,b,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자아효능감은 4학년인 경우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학년 3.27점, 2학년 2.99점, 1학년 2.97점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관적 가정환경인식이 좋은 경우 3.25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3.0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경우 3.22점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경우 2.8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3.24점으로 있는 경우 3.01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주관적 가정환경 인식이 안 좋은 경우 2.83점으로 좋다는 경우 2.5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경우가 2.75점으로 건강하다는 경우 2.5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에서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2.74점, 만족 2.43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2.78점으로 없는 경우 2.50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3.4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외모만족도는 자아효능감($r=0.31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취업스트레스($r=-0.291^{**}$,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r=-0.307^{**}$,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rrelation of instrument scales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Appearance satisfaction	1		
Self-efficacy	0.318**	1	
Job-seeking stress	-0.291**	-0.307**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일부 변수는 가변수 처리를 한 후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 Watson 검정계수는 1.624임을 확인하여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22 ~ 1.135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3.369$), 모형의 설명력은(Adj. $R^2=0.163$) 16.3%를 보였으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효능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B	SE	β	t	p*	VIF
Constant	4.279	0.290		14.731	0.000	
Self-efficacy	-0.245	0.074	-0.233	-3.327	0.001	1.121
Appearance satisfaction	-0.263	0.089	-0.209	-2.965	0.003	1.135
Major satisfaction	0.348	0.115	0.202	3.014	0.003	1.022

$R=0.176$, $R^2=0.163$, $F = 13.369(p<0.001)$
Durbin - Watson= 1.624

*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Dummy variable

4. 논의

취업은 진로의 개념에서 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측면에 당면한 관점으로, 대학생 개별 취업목표, 계획 수립 및 수행,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 정보수집 및 역량개발 등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7].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에서 극심한 불안, 두려움 같은 심리사회적 어려움까지 초래되는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다[28].

이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실질적 접근을 도모하고자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향 구축과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주관적 가정환경인식을 좋게 한 경우, 건강상태가 건강인 경우로 나타나 이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과 이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2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 일반적 특성에서 외모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대학생대상인 이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에서는 유의한 반면 학년, 종교, 전공, 소득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대학생 대상 송의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연령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3,9,30]. 외모만족도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하여 항상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31]. 이에 각기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성 여부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기별, 전공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반복 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4학년, 주관적 가정환경 인식을 좋게 한 경우, 건강상태가 건강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 이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 대학생활과 전공, 학업성적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업 성취도와 차이를 보였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서는 부분 일치하였다[32,33]. 한편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대학생 대상인 김도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9]. 추후 자아효능감 영향요인으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한 지속적 연구도 고려해야 됨을 시사하였으며,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특성에 대한 탐색도 시도해야 된다[34].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로서, 단기간에 형성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채로운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과 적극적인 참여 독려의 지도가 요구된다[9].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주관적 가정환경인식이 안좋은 경우, 건강상태에서는 불건강인 경우, 전공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이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려워지면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진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1,3,5,33]. 경제상태가 안 좋으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야 하는 부담, 진학에 대한 포부 및 가족부양 부담, 가족 간 불화, 경제적 독립 등의 이유이다[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차이를 보여 병원의 힘든 업무에 자신의 건강상태 적응을 가능하며, 미리 건강에 대한 준비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았다[35]. 간호대학생 대상인 한과 박의 연구에서는 종교,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에서 본 결과와 유사한 변수가 있었고, 치위생과 학생 대상 류의 연구에서 하위요인 중 성격과 학업스트레스가 전공 불만족

인 경우에 높았으며, 간호·보건계열 대학생 대상 전과의 연구, 고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채의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졌다[1,29,32,36].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업과 진로를 예상하고 입학했음에도 전공에 대한 동기 저하로 취업스트레스가 높아 학과에서는 전공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진취적인 비전 제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맞춤형 진로지도와 취업 관리가 조망되어야 한다[1,32].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자아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취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과 박의 연구에서처럼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36]. 대학생 대상인 김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의한 정적 관계로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였다[3,9]. 대학생 자신이 태도와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인식 및 키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지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9].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심의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현실적으로 취업 시 면대면 면접을 하므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다[18,35]. 대학생 대상의 연구와 고학년 간호대학생 대상인 채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자아효능감을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 정서 공유와 인지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3,32].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효능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인 한과 박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여러 요인들의 매개 효과 연구가 반복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6]. 간호대학생 대상인 최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가 확인되었

고, 대학생 대상인 송의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나타났으며, 외모로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장점을 살리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대비 프로그램을 갖추며,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압박감을 느끼며 외모를 변화시키는 현상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30,3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강 연구에서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만족도였고, 대학생 대상 김과 이의 연구에서 영향 예측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대학생 대상인 한과 이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와 전공에 대한 결정들이 명확한 목표를 지녀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5,37,38]. 이와 같이 대상과 시기 및 전공, 변수들에 따라 영향 정도에 차이를 보였을 거라 판단되며, 추가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외모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요 시사점을 내포하며, 취업지원 인지중재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지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직업적 특성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의 전략적 방안을 위해 올바른 미적 가치관을 기반한 긍정적인 외모만족도와 자아효능감 증진을 접목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의 단면연구로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추후 조사 대상 확대와 다방면에 걸쳐 세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반복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취업 활동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에 관해 심리적 인자들의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살펴보아 치위생학적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향 설정과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여 취업스트레스 감소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치위생

학과 재학생들의 외모만족도는 자아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취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효능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집중강화를 위해 올바른 미적 가치관에 기반한 긍정적인 외모 수용과 자아효능감 증진을 반영한 실제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G. Ryu. (2016).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4), 591-599. DOI : 10.13065/jksdh.2016.16.04.591
- [2] S. J. Lee & J. H. You. (2008). The medic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3), 607-689.
- [3] E. H.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Seoul Hanyoung University, Seoul.
- [4] K. M. Lee. (2020). *The effect of self-respect and satisfaction on career stress and career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 preparing for employment*.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5] Y. S. Kim & H. J. Lee. (2019). The effect of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411-420. DOI : 10.21742/AJMAHS.2019.06.39
- [6] M. S. Lee. (2011).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scal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7] B. M. Yoo. (2011).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mental health: health and non-bover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8] K. K. Dion. (1981). *The bases of human sexual attraction*. Canada : Toronto Academic Press.

- [9] H. K. Ki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life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4(2), 105-115.
DOI : 10.12811/kshsm.2020.14.2.105
- [10] S. J. Kim & H. H. Kim. (2014).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14(1), 75-84.
DOI : 10.13065/jksdh.2014.14.01.75
- [11] K. H. Hong. (2006).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mi and body image on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2), 348-357.
- [12] J. H. Lee, J. H. Oh & H. K. Kim. (2019). The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daptability on the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6(1), 362-370.
DOI : 10.12925/jkocs.2019.36.1.362
- [13] S. J. Chae. (2008). *The difference in adolescents self-respect and self efficiency made by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physical appearances*. Master's thesis.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Daegu.
- [14] J. H. Jin. (2010). *Impact of the self-efficacy,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15] A. Bandura. (1977). The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6] M. Y. Kang. (2012).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seeking activity, spec 5 activity, on the relation of job preparing stress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17] N. J. Heo. (2011). *The effects of career assistance program on job stress and career self-efficacy of young job seekers*.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Kyeongnam.
- [18] M. R. Bang & S. S. Sim. (2018). Affecting factors in job-seeking stress among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0), 257-266.
DOI : 10.5392/JKCA.2018.18.10.257
- [19] G. Y. Choi & D. H. Lee. (2019).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achievement, and department adjustment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299-305.
DOI : 10.15207/JKCS.2019.10.1.299
- [20] S. Y. Jang. (2015). Study about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15(3), 265-271.
DOI : 10.17135/jdhs.2015.15.3.265
- [21] C. S. Gim. (2002). *Development and effect verification of Gestalt group counseling program to overcome appearance complex*.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22] E. H. Kim. (2013). *The influence of objectification factors on the self-appearanc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 [23] G. Chen, S. M. Gully & D. Eden. (2000). *Genera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re distinguish able constructs*. Toronto : Paper Presented at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24] G. H. Jo & H. B. Ro.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occupational stress: In terms of mediation effects of collective efficacy.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20(4), 175-188.
- [25] K. K. Chon, K. H. Kim & J. S. Yi.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26] Y. K. Yim. (2017). *Impa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career-choice readiness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27] H. R. Lee. (2019). *Educational needs for employment competenc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hr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Jeonju.
- [28] H. C. Cho. (2013).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4(1), 157-187.
- [29] H. S. Jeon & M. R. Lee. (2016).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43-651.
DOI : 10.5762/KAIS.2016.17.12.643

- [30] G. E. Song. (2019).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Namseoul University, Cheonan.
- [31] H. J. Seo. (2010).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eauty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the growin generation concerning appearanc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32] M. O. Chae. (2019).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29-238.
DOI : 10.14400/JDC.2019.17.4.229
- [33]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 [34] Y. H. Kang & S. H. Park. (2014).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adolesc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11-218.
DOI : 10.5392/JKCA.2014.14.06.211
- [35] S. H. Choi. (201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386-393.
DOI : 10.5762/KAIS.2019.20.3.386
- [36] S. H. Han & S. H. Park. (2019). Effecting factors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675-686.
DOI : 10.21742/AJMAHS.2019.02.66
- [37] K. N. Kim & E. H. Kang. (2020).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3), 80-88.
DOI : 10.5762/KAIS.2020.21.3.80
- [38] K. C. Han & H. S. Lee.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arch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3), 967-995.
DOI : 10.23844/kjcp.2019.08.31.3.967

지민경(Min-Gyeong Ji)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 치의학, 융합
· E-Mail : air638@hanmail.net

이미라(Mi-Ra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융합
· E-Mail : lmr3500@hanmail.net